

시대극 '녹두꽃' '이몽' 소명 마치고 퇴장



'녹두꽃'



'이몽'

SBS TV와 MBC TV에서 내놓은 시대극이 각각의 소명을 마치고 나란히 퇴장했다.

1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SBS TV 금토극 '녹두꽃' 마지막 회 시청률은 6.0%~8.1%, 오후 9시 5분 방송한 MBC TV 토요극 '이몽' 최종회는 3.0%~4.3%를 기록했다.

'녹두꽃'은 백이강(조정석 분)이 독립군에 합류하고, 백이현(윤시윤)은 자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125년 전 동학농민혁명을 주요 배경으로 다루고 민중을 정면에 내세운 '녹두꽃'은 정현민 작가가 이번에도 뚜렷한 색깔의 메시지를 담아 깊은 울림을 줬다. 역사책에 '민초'로만 기록됐던 백성들의 저항 정신을 드라마에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그리면서도 전통준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백이강과 백이현이라는 이복형제의 엇갈린 운명을 주요 줄거리로 다루면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고뇌와 고통을 고스란히 표현했다.

그중에서도 조정석은 이번엔 코믹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다시피 하며 묵직한 연기를 선보여 호평 받았다. 송자인 역의 한예리와의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줬다.

물론 민초를 결집하는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생생

민초의 힘 '녹두꽃' 시청률 8.1%
잊지 말아야 할 '이몽' 4.3% 종영
뚜렷한 메시지·홍행은 아쉬워

하고도 우직하게 표현한 전통준 역의 최무성도 극의 중심을 짚었다.

그러나 우급티 전투의 패배, 녹두장군의 체포와 죽음, 이후 일본의 야욕이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미 아는 시청자 중 다수는 주말 밤 굳이 무거운 주제의 작품을 선택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녹두꽃'은 시청률이 주로 4~6%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녹두꽃' 후속으로는 지성 주연의 '의사 요한'을 방송한다.

'이몽' 최종회에는 이영진(이요원)-김원봉(유지태)의 치열하고 격렬한 마지막 독립운동이 담겼다.

'이몽'은 그동안 역사에서 이념적으로 평가가 엇갈렸던 김원봉을 주요 인물로 내세우면서 초반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조선인 여사로 밀정인 이영진을 내세우고 김남옥(조보래), 에스더(윤지혜), 차정임(박하나) 같은 의열단원들을 세세하게 조명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새겼다.

다만 뜻깊은 메시지와 초반 중국 측 투자를 받아 확보한 적지 않은 제작비 투입에도 기대 이하였던 완성도가 발목을 잡았다.

실제 역사를 고려하더라도 앞날이 뻔히 예상된 전개와 더불어 몰입감을 해칠 정도의 완성도가 부족했던 일부 장면, 단조로운 캐릭터 표현 등이 아쉬움을 남겼다. 드라마에서는 처음이지만 영화에서는 이미 '암살', '밀정' 등에서 다른 캐릭터와 이야기인 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몽' 후속으로는 한지혜-이상우 주연의 '황금정원'을 방송한다.

JTBC 금토극 '보좌관'도 전날 5.314%(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의 성적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

시즌1은 장태준(이정재)이 보좌관에게 출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현실정치를 디테일하게 담으면서도 주인공 장태준을 통해 극성을 확보하며 마니아층을 낳은 '보좌관'은 다만 중간유입이 어려운 스토리로 시청률이 5% 안팎에서 답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좌관' 시즌2는 하반기 중 방송될 예정이다. 시즌1 후속은 천우희 주연의 '멜로가 체질'이지만 조연 오승윤이 음주운전 방조로 물의를 빚으며 하차했고 이후 재촬영에 들어가면서 첫 방송 날짜가 다음 달 9일로 밀렸다.

/연합뉴스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3부작' 방영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다큐 EBS1서 내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 이하 ACI)은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3부작'을 16~17일(밤 9시 50분) EBS1을 통해 연속 방영한다.

15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이번 다큐는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 이하 ICHCAP),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 이하 EBS)와 함께 공동 기획 제작했다.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도시화와 서구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이 처한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사라져가는 아시아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ACC/ACI-ICHCAP-EBS는 2016년부터 협력해오고 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CC/ACI는 조사와 연구, ICHCAP은 국가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EBS는 영상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을 맡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2017년 10월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3부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은 3시간 협력의 두 번째 결과물로 중앙아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권역으로 옮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에서 2년의 제작 기간을 걸쳐 해외 로케이션으로 촬영했다.

1부 '인레호수, 대를 이어온 전통의 삶'은 미얀마 인레 호수에 정착한 인따족의 수상생활을 영상에 담았다. '호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따족은 그곳에서 어로활동과 수경재배를 하며 살아간다. 또한 예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인따족은 고유한 전통공예기술로 부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무분별한 모터보트의 사용과 대량 공산품의 수입, 관광을 비롯한 환경의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부 '이푸가오, 고산에 꽃피는 농경문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코르디예라 지역의 계단식 논과 이푸가오 족의 농경의례와 줄다리기를 기록했다. 해발고도 2000~3000미터의 험난한 산악지역에서 무려 천 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푸가오족의 문화와



미얀마 인따족의 수상생활.



필리핀 이푸가오족의 줄다리기.

지혜를 조명한다. 농경문화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체 노래인 후드후드, 수확시기의 의례인 줄다리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부 '학살의 기억을 지우다'는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캄보디아에서 문화예술가 세 명의 이야기를 다룬다. 역사의 암흑기에 그들은 정권을 찬양하는 활동에 강제 동원됐고 내전을 피해 들러간 피난 캠프에서 고난을 겪기도 했다. 어린 시절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술뿐이었다. 그들은 예술의 힘을 믿었으며 전통예술의 복원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후배들을 교육하고 양성했다. 각각의 영역에서 그들이 일구어낸 성과를 보면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한편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는 향후 ACC 콘텐츠로 아시아문화 정보열람 및 제공, 상영, 전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방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을(재)	00 퍼퓸(재)		00 푸리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아티스틱 스위밍 듀엣 프리 예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희망동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우기			25 KBC특별기획 사랑의 보금자리 55 닥터 365
[2]	40 팔도방송 스페셜 50 UHD 숨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5 구해줘! 홈즈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퍼퓸(재)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퍼퓸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2부
[11]	35 UHD 숨터 40 달 착륙 50주년 특선 다큐 8월 간의 위대한 여정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벵장이	05 PD수첩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자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빛고를고등학교 토론대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퍼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퍼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댕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여름날의 꿈 캄보디아 2부 메콩강의 노래>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원스(재)	<이곳은 신선동 2부 스니파의 하루>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건축탐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덩동댕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7월 16일(음 6월 14일 甲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6일(음 6월 14일 甲寅)
<p>子 36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48년생 가능성이 약하니 기대는 하지 말라. 60년생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 72년생 건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격이다. 84년생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23</p>	<p>午 42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실행하자. 54년생 유연하게 대응 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66년생 지난날에 비추어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78년생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야 할 때다. 90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행운의 숫자 : 32, 69</p>
<p>丑 37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49년생 냉관적인 정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61년생 복 속에 조그만 화의 불씨가 숨어 있다. 73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85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 95, 82</p>	<p>未 43년생 시기를 확실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55년생 쌍방이 상호적이여야만 오래 지속 될 것이다. 67년생 곧 안정 될 것이니 염려 말라. 79년생 긍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91년생 관심을 가져 왔던 바에 효과가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56, 87</p>
<p>寅 38년생 점검한 후에 진행하라. 50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되어질 수다. 62년생 계획대로 조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74년생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86년생 측면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 가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51, 11</p>	<p>申 44년생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56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성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리라. 80년생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다면 오판의 소지가 크다. 92년생 흠여져 있는 것이 모아지리라. 행운의 숫자 : 80, 89</p>
<p>卯 39년생 문제점을 인식하면 증응하라. 51년생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63년생 생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다. 75년생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87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행운의 숫자 : 75, 94</p>	<p>酉 45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 될 것이다. 57년생 털어 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69년생 감 잡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81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93년생 진퇴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0, 07</p>
<p>辰 40년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52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64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76년생 중도에서 개편 되겠다. 88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1, 08</p>	<p>戌 34년생 재물이 사방에 보이는 형상이로다. 46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되리라. 58년생 멀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70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82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행운의 숫자 : 87, 55</p>
<p>巳 41년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53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다. 65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77년생 바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89년생 객관적이여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27, 35</p>	<p>亥 35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다. 47년생 맹점만 보완하면 된다. 59년생 추구하여 왔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71년생 좀 더 세분화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54, 98</p>